



옛 전남도청 아트 펜스 4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옛 전남도청)에 남도민의 생활 모습이 담긴 '아트 펜스'가 설치됐다. 윤남웅씨 등 작가 20여명이 만든 이 아트펜스는 오는 6일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민에 공개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나라당 새대표

홍준표의원 선출

한나라당 대표에 수도권 4선의 홍준표(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지낸 홍 의원을 새 당 대표로 선출했다.

새 대표의 임기는 4·27 재보선 패배로 물러난 직전 지도부의 잔여임기인 내년 7월13일까지다.

2위는 친박(친박근혜)계 재선인 유승민 의원이 차지했으며 3위는 중도성향의 재선인 나경원 의원, 4위는 친이(친이명박)계가 지지한 3선의 원희룡 의원, 5위는 새신파를 대표해 출마한 4선의 남경필 의원이 각각 차지,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됐다.

대의원과 당원, 정년선거인단 투표(70%) 및 일반 여론조사(30%, 3개 여론조사 기관 실시)를 합산한 결과, 홍 후보가 가장 많은 4만1666표를 얻었으며 유 후보가 3만2157표, 나 후보가 2만9722표, 원 후보가 2만9086표, 남 후보가 1만4896표를 각각 얻었다.

박진 후보와 권영세 후보는 각각 8956표, 6906표를 얻는데 그쳐 지도부 진입에 실패했다.

홍 의원의 압도적 선출은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경륜과 패기를 동시에 평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40대로의 세대교체보다는 안정 속 쇄신이 위기의 한나라당에 더 필요한 요소로 파악했다는 분석이다.

새 지도부는 내년 4월 총선 승리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쇄신·통합·친서민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SHIN UNIVERSITY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 문예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해설이 있는 '명품 음악회' 내일 첫번째 공연 열립니다

- 최종민 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와 함께 하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 6일 오후 7시30분·광주문예회관 소극장
- 문의=062-613-8350, 062-220-0651



※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한차례 국악, 오페라, 클래식, 발레 등 장르별로 열리며 일부 공연 무료, 일부 공연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光州日報社·광주문예회관

알림

'광일춘추' 필진 바꿉니다

전국 대표 지방 정론지들의 모임인 '춘추사'가 국내 정상급 필진들을 초대, 공동 게재하는 목요일잡 '광일춘추'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광주일보를 비롯해 부산일보·매일신문·경남신문·강원일보·경인일보·대전일보·전북일보·제주일보 등 지역 대표신문 9개사는 각계 전문가로 필진을 구성, 한국 사회의 이슈들을 날카롭게 파헤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바랍니다.



배병삼 교수



이병수 교수



탁계석 회장



승효상 감독

◇배병삼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경희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한국사상사 연구소 연구원 ▲저서 '한글세대가 본 논어' '다산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공저) '한국정치의 재성찰-전근대성·근대성·탈근대성'(공저)

◇이병수 美 엘런(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서울대 국제경영학, 미주리대 저널리즘 석·박사 ▲워싱턴 포스트 닷컴 해외·국내 데스크 근무 ▲고려대·한국외대 강의 ▲국제주관성학회(ISSSS) 회장

◇탁계석 한국예술비평가 회장

▲경희대 음악대학, 경희대 음악대학원 ▲한국음악학회 부이사장 ▲문화재단21 논설주간 ▲서울문화포럼 위원 ▲경기도 문화예술전문위원 ▲한류문화산업포럼 정책위원장

◇승효상 건축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사·박사 ▲2002 미국건축가 협회 Honorary Fellowship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서울건축학교 운영위원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예술 감독

光州日報社

광주시-시의회 대화가 막혀간다

주민호응 사업 예산 잇따라 삭감·변경 설득·소통 실종...애꿎은 시민만 피해

#국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무등산과 그 주변을 광주시민은 물론 외지인들이 좀 더 가까이서,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무등산순환버스 운행이 3개월여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광주시의회에서 관련 예산 2억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수년째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광주시티투어버스 예산 1억원도 잘려나갔다.

#광주시는 민선 5기 들어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34억원을 편성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을 가미한 어린이공원을 17곳에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예산을 기존 어린이공원 54곳의 시설개선비로 바꿨다.

민선 5기 들어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현안사업 예산들이 광주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 또는 변경되면서 시와 시의회간 소통 부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집행기관인 광주시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미흡했고, 대의기관인 시의회 역시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 자체의 취지를 살피기보다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는 관행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말 2011년 광주시 본예산 중 86억2000여 만원을 삭감한 데 이어 최근 추가경정 예산안도 48억60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 규모는 모두 134억 원으로, 시의회 개원 이래 사상 최대다.

이처럼 예산 삭감액이 커진 것은 역대 의회와 달리 제6대 시의회 출범 이후 사업성 여부, 사업의 우선 순위

를 따지는 등 예산 심의가 더욱 꼼꼼해진 점도 있지만, 집행부 간부들과 시의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무등산 순환버스 운영비(2억원) 및 시티투어버스 운영비(1억원) 삭감, 어린이공원 조성비(34억원)의 사용처 변경 등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강운태 광주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데다 외지인 및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새로운 어린이공원 17곳 조성사업은 광주시가 광주디자인센터와 연계해 주민들의 수요조사까지 마치고 추진중이었으나 시의회는 이미 설치된 어린이공원 54곳의 시설개선으로 변경했다. 오는 2015년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을 앞두고 있어 기존 시설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었지만, 실상은 시와 시의회의 '기 싸움'에 의한 한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해양부의 '고향의 강' 사업인 광산구 풍영정전 설계비 2억4000여 만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은 "무등산 순환버스 운영비 예산은 시가 관광과의 예산을 환경국 예산으로 가져와 사용하면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데다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됐다"며 "상임위에서 논란이 된 만큼 집행부 간부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광주시와 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며 "사업의 취지와 정당성을 알리는 광주시의 낮은 자세와 광주 전체를 고민하는 광주시의회의 폭넓은 시야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대표 상수원 - 동복호



깨끗한 광주의 수돗물 빛여울수

빛여울 수!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광주의 상수원은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유입되지 않은 좋은 조건을 기본으로 자동으로 정수약품을 주입하고 수질관리가 철저하여 깨끗합니다.

- 현재, 상수원수는 비교적 좋은 조건의 수질상태 유지
- 미국, 일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한 수질기준에도 적합한 물
-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수질검사항과 가장 안전한 수돗물 판명

빛여울 수!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시민 모두 참여할수 있는 수돗물 절약 실천 사항

- 샤워, 세수, 설거지, 세차 등 많은양의 물이 필요할시에는 받아서 사용한다.
- 수도꼭지 등 누수방지를 위해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절약형 샤워꼭지나 유량조절기를 부착한다.
- 하수구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지 않는다.
- 샴푸, 린스,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인다.
- 한번 사용한 물을 재 사용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